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교리봉사자 모집

- 그동안 서울대교구에서 사용해온 “함께하는 여정” 예비신자 교리서가 개편되어 새롭게 나눔 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 교리서 안내 및 나눔 봉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본당에서 교리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4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사순실천표를 내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4/11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04/18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교육 / 강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04/01~04/06)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구역 1반	정지철	루카	서울/불광동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4/1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3월31일 ~ 04월06일)

교무금	11,790,000 원
주일헌금	5,796,000 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1,133,000원
감사헌금	지경자 3만원 노갑렬 50만원 김강자 10만원 김수자 10만원 이인자 4만원 최OO 30만원 김OO 5만원 최OO 10만원 강승월 5만원 정봉순 5만원 박상덕 30만원 박경순 10만원 황선아 2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4/11	황원선	이응남 김진수	최승일 권태희
04/18	이영민	오성환 도현만	최웅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주일	06:30	10:30	12:00	19:00
04/11	박용환	이성일 손상민	이계명 최석준	장인홍	
04/18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이성일 최승일	최상남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8.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이의 사이에서 형제애에 대한 세계적 열망을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 사이에서 이루는 형제애 말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삶을 멋진 모험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삶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도록 서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 곧 신기루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꿈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한 인류로서, 같은 인간 육신을 지닌 길동무로서, 우리 모두를 환대해주는 같은 땅의 자녀로서, 저마다 신앙이나 신념의 부요함을 지닌 개개인으로서, 저마다 목소리를 지닌 개개인으로서,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서 우리 함께 꿈꿉시다!

제 1장 달린 세상의 그림자

9.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거나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형제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대 세계의 몇 가지 경향에 주의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부서진 꿈들

10.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많은 전쟁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인정하고 유럽 대륙이 품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하나 된 유럽이라는 꿈이 발전되었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이 대륙의 모든 민족 간의 평화와 친교를 촉진하고자 협력하는 역량에 기초한 미래를 꿈꾸던 유럽 연합 설립자들의 굳은 신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 통합을 향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평화와 화해를 향한 시도들이 결실을 맺고 앞날이 기대되는 다른 시도도 있었습니다,

11. 그러나 역사는 퇴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복하였다고 여기던 구시대적인 분쟁이 고조되고, 폐쇄적이고 격화되고 격렬하고 공격적인 민주주의가 되살아납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가득 찬 국민과 국가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여러 나라에서 국익 보호라는 허울에 가린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 그리고 사회 인식의 결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다시금 상기합니다. “모든 세대는 앞선 세대들의 투쟁과 쟁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욱더 숭고한 목표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사랑, 정의, 연대와 함께 선은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불의한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도 되는 양,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며 머물러 즐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12. ‘세상을 향한 개방’은 오늘날 경제와 금융이 전용해 버린 표현입니다. 이는 외국 이윤에 대한 개방성이나 모든 나라에 규제나 복잡한 과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의 자유를 배타적으로 일컫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역 분쟁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을 단일 문화 모형의 강요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계를 획일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나라들은 갈라놓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세계화되면서 우리는 서로 이웃이 되지만 형제가 되지 못하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복돋을 뿐 삶의 공동체 차원은 약화시키는 이 대량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유례없이 더욱 고독합니다. 시장은 늘어나지만 개인은 소비자나 구경꾼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대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힘센 자들의 정체성은 강화시키는 반면, 가장 약하고 가난한 지역의 정체성은 약화시켜 더욱 힘없고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정치는 ‘분할 통치에 열중하는 초국가적 경제 권력 앞에서 점점 더 허약해집니다.